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문연다

- 환경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운영 개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인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이 4월 17일 오전 해당 충전소 부지(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세운산업(주)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올해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으며,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하여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액화수소 압력 10기압 이하(기체수소 200기압 이상)

** 액화수소 1회 운송량 3톤 이상(기체수소 300kg)

환경부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기체수소충전소와 병행하여 2024년까지 40기, 2030년까지 280기(누적 기준) 이상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 참석에 앞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시설인 에스케이 이앤에스 액화수소플랜트(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를 방문해 시운전 상황 등을 점검한다. 올해 1월 창원에 위치한 두산 액화수소플랜트(1,700톤/년)가 준공한 데 이어 인천(SK E&S, 3만톤/년)과 울산(효성 하이드로젠, 5,200톤/년) 액화수소플랜트까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액화수소는 연간 약 3.69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세계 각국이 수소차 등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환경부가 먼저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행사 계획. 끝.

환경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박재근 (044-201-688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일시) '24. 4. 17, 10:30~12:00

(장소)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및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 인천시 서구 중봉대로 306번길 33, ** 인천시 서구 보도진로 30번길 28

(참석자) 환경부, 인천시, SK E&S, 세운산업 등 관계자

○ (환경부) 차관, 대기환경정책관 등

○ (인천시) 행정부시장, 미래산업국장 등

○ (업체 등) SK E&S 대표이사, 현대자동차 부사장, 세운산업(충전소 운영업체) 대표이사 등

세부 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플랜트 시찰	10:30~10:40 10'	· 사전 환담회
	10:40~10:50 10'	· 액화수소플랜트 시설 브리핑
	10:50~11:10 20'	· 액화수소플랜트 시설 시찰 및 기념 촬영
이동	11:10~11:20 10'	인천 가좌 수소충전소로 이동 (수소버스, 2.6km)
충전소 준공식	11:20~11:40 20'	· 수소충전소 준공행사 (환영사, 축사, 컷팅식, 기념촬영 등) · (환영사) 세운산업 대표 · (축사) 환경부 차관 → 인천시 행정부시장 → SK E&S 대표
	11:40~11:50 10'	· 액화수소충전소 시설 브리핑
	11:50~12:00 10'	· 수소버스 충전 시연

※ 세부 일정은 현장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